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인식한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Co-Parenting in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1차원고접수: 2024.07.10. 수정원고접수: 2024.08.21. 최종게재결정: 2024.09.21.

한세영¹ · 조연수² · 유설희³ ·
홍유정⁴

¹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³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
⁴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Han, Sae-Young¹

Cho, Yeon Soo²

Yoo, Seolheui³

Hong, Yoo Jung⁴

^{1,4}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²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³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 조사한 제7차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 중 만 6세(만 72 ~ 79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474명과 아버지 1,474명(총 2,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각각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 및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각각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이라는 내적 요인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양육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아기 부모,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공동양육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i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co-parenting among mothers and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ata from the 7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2014),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focusing on 1,474 mothers and 1,474 fathers (2,948 participants) with children aged 6 (72 to 79 month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depression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o-parenting, as well as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via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were also significant. Second, paternal depres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o-parenting, but it did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via self-esteem and family interaction were also significant. This study highlights that maternal depression directly impacts co-parenting and that depression in both mothers and fathers, as an internal factor, affects family interaction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in child-rearing.

Keywords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depression, self-esteem, family interaction, co-parent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양육은 부모가 상대방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McHale, Kuersten-Hogan, Lauretti & Rasmussen, 2000), 합의된 기준에 따라 부부가 일관된 양육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전선영, 이희선, 2022).

* 이 논문은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조연수 (Cho, Yeon So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mail. yeonsoo401@gmail.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것은 유아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박선진, 강민주, 2020; 박일새, 남은영, 2015),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게 하며(양예진, 도현심, 2019),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이윤진, 2017) 가족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더불어, 부모-자녀 및 부부 간 관계의 질과 결혼생활의 지속성 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습득된 운동능력 및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된 언어 및 사회·정서·인지·신체적 능력에서의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유아의 발달적 능력과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Bigner & Gerhardt, 2014). 이에 부모가 서로 합일된 기준에 따라 협력하는 양육행동을 행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부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많이 요구되며,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Feinberg(2003)의 부모공동양육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 of coparenting)에서는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는 개인 수준과 전반적인 부모 간 관계와 관련된 가족 수준, 경제 및 직장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 대처 관점에 기초한 가족 외 수준 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개인과 가족, 가족 외 요인들이 공동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동양육은 부모의 심리적 상태, 부부 상호작용,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측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Power, 2013)에 기반하여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가족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서 우울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서석원, 이대균, 2014; 조민규, 김춘경, 2015;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3; 한유경, 신나나, 2023; Wilson & Durbin, 20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높은 우울 수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역할을 덜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요구되는 양육역할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며(Downey & Coyne, 1990),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써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정운, 장미경, 2009)고 보고되었다. 특히, 유아기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참여를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 김진숙,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에도 우울감이 낮을수록 애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욱 많이 보였으나(이경선, 2017), 우울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내의 지지와 격려를 낮게 인식하고 비판과 통제를 높게 인식하였다(이슬기, 유성경, 방지원, 2022). 국외 연구에서도 국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보고되었는데,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행동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Wilson & Durbin, 2010)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증이 양육에 작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우울한 아버지는 긍정적 양육 행동이 감소하고 부정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우울은 부부 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Bakker, Demerouti, & Dollard, 2008; Song, Foo, Uy & Sun, 2011), 부부 개인의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지지도 높다는 선행연구(Bonds & Gondoli, 2007)를 통해 부모가 느끼는 우울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뤄내야 하는 공동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의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꼽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Rosenberg, 1979),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공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다(김태선, 도현심, 2021; 신동주, 최현미, 2011; 연은모, 최효식, 2018; 이경선, 2017; Kuster, Orth & Meier, 2013; Lindsey, Caldera & Colwell, 2005).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덜 간섭하는 공동양육행동이 나타나거나(Lindsey, et al., 2005) 유아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가 공동양육을 더 많이 하였다(김태선, 도현심, 2021).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갈등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욱 많이 보였다(이경선, 2017). 이에 더하여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공동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연은모, 최효식, 2018),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부 간의 갈등을 증가시켰는데(신동주, 최현미, 2011; Kuster et al., 2013), 이러한 부부갈등은 결국 공동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연은모, 최효식, 2014)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Gerdes et al., 2007)는 부모의 우울이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공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권수진, 이지영, 2017)임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부모로서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이정윤, 장미경,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주은정, 정효정, 2019), 어머니 및 아버지가 지각한 우울감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Feinberg(2003)의 부모공동양육 생태학

적 모델이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가족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의존하고 유대감을 갖고 있는지와 가정 안팎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행하는지를 의미하는데(Olson & Gorall, 2003),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었으며(Jacob & Johnson, 1997), 아버지가 우울함을 느낄수록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졌다(Low & Stocker, 2005). 이와 더불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의미하는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서지은, 김희정, 2012)에서도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우울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나 부모의 우울은 가족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상호작용은 안정적인 양육태도(박성혜, 이희선, 2020; 양진희, 2016; 최경일, 2022)나 양육효능감(박성혜, 김은향, 2019)과도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상호작용은 부부의 공동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부관계에서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아버지 및 어머니의 지지적인 공동양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재원, 남은영, 2018),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시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게 경험할수록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정미라, 최혜정, 강수경, 2019). 이와 유사하게 부모 각자가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양육을 더욱 많이 한다(김수아, 2021; 최아현, 2020)고 밝혀진 반면, 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부부 간의 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갈등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욱 많이 하였다(이경선, 2017). 부모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우울과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이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양육 간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수준은 부부 간에 바람직한 가족상호작용이 형성되고 이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는데,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권수진, 이지영, 201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을 더욱 원만하게 하고 있음(Small, 1988)을 보고하고 있어 부모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한정적이며, 공동양육뿐만 아니라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선행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4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과 출산조사(박종서 등, 2021)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1.6%, ‘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1.5%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협력하고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공동양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조사에서 ‘아이는 아

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에 대해 여성(47.9%)보다는 남성(61.3%)이 더 많이 동의하여, 유아기 자녀의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탐색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고자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조사한 제7차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 중 만 6세(만 72 ~ 79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474명과 아버지 1,474명(총 2,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만 6세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배우고 성취해야 할 발달적 과제가 더욱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그에 따라 부모가 서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주요한 과업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만 6세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51.2%(754명), 여자가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474(쌍))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자녀의 성별	남자	754	51.2	
	여자	720	48.8	
지역규모	대도시	619	42.0	
	중소도시	805	54.6	
	읍/면	50	3.4	
어머니 최종학력	무학	1	0.1	
	초등학교 졸업	1	0.1	
	중학교 졸업	3	0.2	
	고등학교 졸업	425	28.8	
	전문대 졸업	406	27.5	
	대학교 졸업	551	37.4	
	대학원 졸업	84	5.7	
	결측값	3	0.2	
아버지 최종학력	무학	0	0.0	
	초등학교 졸업	0	0.0	
	중학교 졸업	7	0.5	
	고등학교 졸업	391	26.5	
	전문대 졸업	299	20.3	
	대학교 졸업	616	41.8	
	대학원 졸업	156	10.6	
	결측값	5	0.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중	603	40.9	
	학업 중	10	0.7	
	취업 학업 병행 중	38	2.6	
	미취업 미학업	803	54.5	
	무응답	1	0.1	
	결측값	19	1.3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구소득(만원)	447.01	199.86	100	2500
어머니 연령	36.81	3.69	25	53
아버지 연령	39.27	4.10	25	56

48.8%(720명)이었고, 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54.6%), 대도시(42.0%), 읍/면(3.4%) 순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의 평균은 447.01만원, 어머니 평균 연령은 36.81세,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9.27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우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Kessler 우울 척도(The six-question scales; K6)(Kessler

et al., 2002)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개이며, ‘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까지로 응답하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울을 높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어머니가 .92, 아버지는 .93이었다.

2)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부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아존중감을 높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10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어머니가 .89이었고, 아버지는 .87이었다.

3) 가족상호작용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가족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Olson(2010)의 가족상호작용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 IV)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4개이며, 하위영역은 균형 있는 응집성(balanced cohesive)과 균형 있는 유연성(balanced flexi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형 있는 응집성은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의미하며, 균형 있는 유연성은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족상호작용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14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어머니가 .91, 아버지는 .92이었다.

4) 공동양육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한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4)에서 사용한 Mchale(1997)의 공동양육척도(The Coparen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6개이며, 하위영역별로는 가족통합(family integrity) 7문항, 비난(disparagement) 3문항, 갈등(conflict) 2문항, 훈육(reprimand)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로 응답하는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은 한다”, “배우자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동양육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1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어머니가 .80이었고, 아버지는 .80이었다.

5)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가구소득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학력이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고(김미경, 2018),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참여도가 높았으며(이배, 김경숙, 2013; 임지영, 이윤정, 배운진, 20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부모공동양육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태선, 도현심, 2021). 또한 취업모 가정이 비취업모 가정에 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강관혜, 2001).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대한 질문에 ‘무학(1점)’에서 ‘대학원 졸업(7점)’까지로 응답하는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실수령액)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상(3점), 중(2점), 하

(1점)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취업 중’에 해당하는 응답을 1점으로 변환하고, 나머지 응답에 대해서는 0점으로 변환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는 네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에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3.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함으로써 총 2,562가구의 예비 표본, 2,078가구의 원표본, 2,150가구의 전체 표본을 구축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4년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조사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조사되었으며, 총 1,620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완료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는 우편발송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을 대상으로는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면접조사와 수행검사가 이루어졌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이 연구에서는 만 6세(만 72 ~ 79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474명과 아버지 1,474명(총 2,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6.0(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를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인식한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예비분석으로 이 연구의 변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은 자아존중감($r = -.59, p < .001$), 가족상호작용($r = -.45, p < .001$) 및 공동양육($r = -.38,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r = .47, p < .001$) 및

표 2.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상관관계

($N = 1,474$)

	1	2	3	4
1. 우울	-			
2. 자아존중감	-.59***	-		
3. 가족상호작용	-.45***	.47***	-	
4. 공동양육	-.38***	.44***	.59***	-
<i>M</i>	1.92	3.74	3.78	5.16
<i>SD</i>	.74	.61	.53	.70
최솟값	1.00	1.00	1.00	2.19
최댓값	4.83	5.00	5.00	7.00

*** $p < .001$.

표 3.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상호작용 및 공동양육 간의 상관관계

(N = 1,474)

	1	2	3	4
1. 우울	-			
2. 자아존중감	-.53***	-		
3. 가족상호작용	-.43***	.47***	-	
4. 공동양육	-.35***	.45***	.65***	-
<i>M</i>	1.87	3.82	3.82	4.91
<i>SD</i>	.74	.56	.52	.69
최솟값	1.00	1.60	1.00	2.25
최댓값	5.00	5.00	5.00	6.81

*** $p < .001$.

표 4.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경로	<i>B</i>	β	<i>S.E.</i>	<i>t</i>	<i>R</i> ²	<i>F</i>
우울	→ 자아존중감	-.47	-.57	.02	-27.30***	.38	176.08***
우울	→ 가족상호작용	-.20	-.27	.02	9.88***	.28	92.40***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26	.29	.02	10.33***		
우울	→ 공동양육	-.06	-.06	.02	-2.26*		
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20	.18	.03	6.47***	.38	128.40***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62	.48	.03	19.6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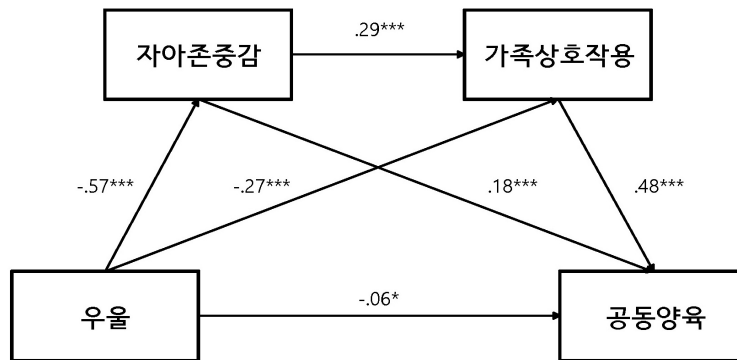
공동양육($r = .44,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양육($r = .59, p < .001$)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나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우울은 자아존중감($r = -.53, p < .001$), 가족상호작용($r = -.43, p < .001$) 및 공동양육($r = -.35,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r = .47, p < .001$) 및 공동양육($r = .45,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양육($r = .65, p < .001$)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나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2.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

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가 인식한 공동양육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6, p < .05$). 즉, 어머니가 우울을 높게 인지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7, p < .001$), 자아존중감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8, p < .001$). 다시 말해, 어머니가 우울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7, p < .001$), 가족상호작용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48, p < .001$). 즉, 어머니가 우울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어머니가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 $p < .05$, *** $p < .001$.

그림 1.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표 5.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우울 → 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09	.02	-.13	-.06
우울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12	.02	-.16	-.09
우울 →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07	.01	-.09	-.06

로, 어머니가 인식한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 $p < .001$). 즉, 어머니가 우울함을 많이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졌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증 시 샘플 수는 5000,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9$, 95% CI [-.13, -.06])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12$, 95% CI [-.16, -.09])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상호작용을 거쳐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7$, 95% CI [-.09, -.06])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가 인식한 공동양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2$, $N.S.$). 다음으로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표 6.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경로	B	β	S.E.	t	R ²	F
우울 → 자아존중감	-.40	-.53	.02	-24.11***	.32	134.39***
우울 → 가족상호작용	-.18	-.26	.02	9.74***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30	.32	.03	11.76***	.28	91.31***
우울 → 공동양육	-.02	-.02	.02	-.95		
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21	.18	.03	7.04***	.45	165.42***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72	.55	.03	2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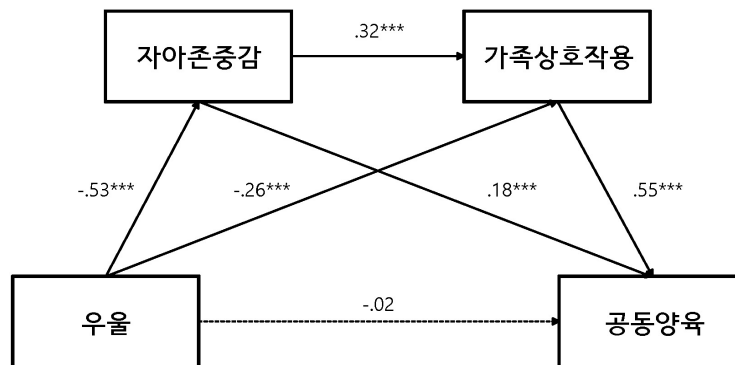
*** $p < .001$.*** $p < .001$.

그림 2.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살펴보면,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3, p < .001$), 자아존중감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8, p < .001$). 다시 말해, 아버지가 우울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졌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6, p < .001$), 가족상호작용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55, p < .001$). 즉, 아버지가 우울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아버지가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인식한 자아존중감은 가족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2, p < .001$). 즉, 아버지가 우울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졌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족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을 부

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증 시 샘플 수는 5000,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9, 95\% \text{ CI } [-.11, -.06]$)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13, 95\% \text{ CI } [-.17, -.09]$)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상호작용을 거쳐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8, 95\% \text{ CI } [-.11, -.07]$)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표 7.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N = 1,474)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우울 → 자아존중감 → 공동양육	-.09	.01	-.11	-.06
우울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13	.02	-.17	-.09
우울 → 자아존중감 → 가족상호작용 → 공동양육	-.08	.01	-.11	-.07

났다. 즉,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을 대상으로 우울과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은 공동양육에 약하지만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가 인식한 공동양육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인식한 공동양육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이윤주, 김진숙, 2012; 이정운, 장미경, 2009)나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이경선, 2017)의 결과를 통해 예측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아버지의 양육을 존중하면서 양육에 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직접적인 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부적 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예측했던 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 또한 공동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가족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쳤고, 또한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가족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영향도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낮을수록 남편과의 공동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가족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남편과의 공동양육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우울감이 애정적 공동양육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이경선, 2017), 어머니의 자존감과 공동양육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김태선, 도현심, 2021), 우울과 자존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주은정, 정효정,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부부관계 유대감 또는 결혼만족도가 지지적인 공동양육과 정적상관에 놓여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수아, 2021; 김재원, 남은영, 2018; 김수아, 2021)와 부모의 우울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며(서지은, 김희정, 201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가족 간 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권수진, 이지영, 201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요인인 우울이 긍정적인 공동양육에 참여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아의 건강성을 해치고 가족 간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양육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은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달랐으며, 이는 아버지의 우울감과 애정적 공동양육의 부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경선, 2017; 이슬기 등, 202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로 모형에서 우울과 공동양육 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을 포함한 것은 우울이 자아의 내면적 요소와 가족 간의 관계적 측면을 통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에 작용하는 다른 개인내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검증해보아야 할 더 큰 필요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머니의 경로와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간접적 경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양육행동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이경선, 2017), 아버지의 우울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Jacob & Johnson, 1997)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동양육에 대한 연구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소수의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그 경로를 검증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우울과 가족상호작용의 관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의 관계, 아버지의 가족상호작용과 공동양육의 관계 또한 어머니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과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해 가족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쳤고, 또한 가족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미쳐 아버지가 인식한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의 경로는 유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공동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개인의 상호적인 관계의 역동을 고려할 때, 우울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개인내적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울 수준이 높아지면 각각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양육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재고하게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평소에 아버지와 어머니 상호 간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구성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로 인해 구체적인 양육상황에서 서로 공동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유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활동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이며, 생활규칙의 학습과 도덕규범의 내면화 등 주요한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만 6세 유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해당하는 학습과 관련된 과업들도 주어져 이를 유아의 월령과 인지적 능력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도 부모의 주요한 역할이 된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아의 적응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과업의 기준을 서로 의논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적인 양육을 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동양육이 부모 각각의 내면에 건강한 정서와 자아를 바탕으로 서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아기의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해되어야 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유사

하게 나타났으나,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여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다집단분석을 통해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집단을 검증함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가 두 집단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은 비록 약하지만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의 우울은 공동양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나 에너지를 직접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한편, 아버지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강도가 강하고 그로 인해 공동양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경로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다르게 나타나, 공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우울을 다룰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경로가 어머니에게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매우 큰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있는 반면,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는 부족했던 것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공동양육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을 매개하여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선행연구 중에서는 부모의 양육분담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양진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성령, 박충선, 2018)도 보고되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각 연구 변인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를 자녀로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동양육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역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발달단계별로 접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이라는 내적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양육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동양육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경우, 우울이라는 정서적인 문제 그 자체보다 우울로 인한 자아의 손상에 취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였고,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다르게 살펴보아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가 부부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란해 (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능력-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189-200.
- 권수진, 이지영 (2017).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9(4), 121-142.
- 김미경 (2018). 신념, 대처방식, 학력이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 미치는 영향. *MeFOT 창의인성연구*, 6(1), 5-19.
- 김성령, 박충선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3(2), 215-233.
<https://doi.org/10.13049/kfwa.2018.23.2.4>
- 김수아 (2021).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한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5(3), 101-124.
<https://doi.org/10.5718/kcep.2021.15.3.101>
- 김재원, 남은영 (2018). 부부관계 유대감, 부부공동양육 및 유아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97-116.
<https://doi.org/10.22831/kap.2018.10.1.005>
- 김태선, 도현심 (2021). 유아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모공동양육 및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령진입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단기 종단적 영향. *아동학회지*, 42(4), 473-489.
<https://doi.org/10.5723/kjcs.2021.42.4.473>
- 박선진, 강민주 (2020).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4(2), 3-27.
<https://doi.org/10.5718/kcep.2020.14.2.3>
- 박성혜, 김은향 (2019). 부·모의 가족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59-76.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2.059>
- 박성혜, 이희선 (2020). 부·모의 가족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703-723.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5.703>
- 박익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해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1-5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석원, 이대균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서지은, 김희정 (2012).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0(3), 457-486.
- 신동주, 최현미 (2011). 부부간 친밀관계경험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1), 301-324.
- 양예진, 도현심 (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40(3), 39-51.
<https://doi.org/10.5723/kjcs.2019.40.3.39>
- 양진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방식, 우울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4), 409-433.
- 연은모, 최효식 (2014). 어머니의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81-100.
<http://doi.org/10.14698/jkce.2014.10.6.081>
- 연은모, 최효식 (2018). 일-양육 양립식 이점과 갈등,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간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497-523.
<http://doi.org/10.22251/jlcci.2018.18.7.497>
- 육아정책연구소. (2014).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http://panel.kicce.re.kr/>에서 2024년 7월 1일 인출
- 육아정책연구소. (2016). *한국아동패널(PSKC) 제 1~7차 조사 데이터 사용 지침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선 (2017).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 (coparenting) 관련 변인: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37(4), 421-434.
<http://doi.org/10.18023/kjece.2017.37.4.017>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 이슬기, 유성경, 방지원 (2022).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관계: 아버지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1), 23-41.
<http://doi.org/10.20406/kjcs.2022.2.28.1.23>
- 이윤주, 김진숙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http://doi.org/10.20406/kjcs.2022.2.28.1.23>
- 이윤진 (201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출산 후 남편 양육참여와 아내 결혼만족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출산 후 남편 양육참여와 아내 결혼만족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4), 1-21.
<http://doi.org/10.31553/kpsr.2017.12.21.4.1>
- 이정운, 장미경 (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임지영, 이윤정, 배윤진 (2015). 양친가정 내 공동양육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65-92.
- 전선영, 이희선 (2022).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3), 37-59.
<https://doi.org/10.14698/jkce.2022.18.03.037>
-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 (2019). 부부친밀감이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양육일치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이중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9(4), 195-212.

-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4.008>
- 조민규, 김춘경 (201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2), 85-107.
- 주은정, 정효정 (2019). 모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145-169.
<https://doi.org/10.37918/kce.2019.05.116.145>
- 최경일 (2022).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경기도 거주 부모 간 차이. *GRI 연구논총*, 24(1), 235-257.
<https://doi.org/10.23286/gri.2022.24.1.009>
- 최아현 (2020).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문지기 역할이 부모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환경 변인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영유아보육학*, 83, 51-75.
- 한유경, 신나나 (2023).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1), 139-156.
- Bakker, A. B., Demerouti, E., & Dollard, M. F. (2008). How job demands affect partners' experience of exhaustion: Integrating work-family conflict and cross-over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4), 901-911.
<https://doi.org/10.1037/0021-9010.93.4.901>
- Bigner, J. J., & Gerhardt, C. (2014).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9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Bonds, D. D., & Gondoli, D. M. (2007).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marital adjustment affects maternal warmth: The role of coparenting support as a mediat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288-296.
<https://doi.org/10.1037/0893-3200.21.2.288>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https://doi.org/10.1037/0033-2909.108.1.50>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Gerdes, A. C., Hoza, B., Arnold, L. E., Pelham, W. E., Swanson, J. M., Wigal, T., & Jensen, P.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behavior: Exploration of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705-714.
<https://doi.org/10.1007/s10802-007-9134-3>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Vol. 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acob, T., & Johnson, S. L. (1997). Parent-child interaction among depressed fathers and mothers: Impact on child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391-409.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https://doi.org/10.1017/S0033291702006074>
- Kuster, F., Orth, U., & Meier, L. L. (2013). High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better work conditions and outcom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6), 668-675.
<https://doi.org/10.1177/1948550613479806>
- Lindsey, E. W., Caldera, Y., & Colwell, M. (2005). Correlates of coparenting during infancy. *Family Relations*, 54(3), 346-359.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5.00322.x>
- Low, S. M., & Stocker, C. (2005).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ssociations among parents' depressed mood, marital hostility, parent-child hosti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94-403.
<https://doi.org/10.1037/0893-3200.19.3.394>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McHale, J. P., Kuersten-Hogan, R., Lauretti, A., & Rasmussen, J. L. (2000). Parental reports of coparenting and observed co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toddler peri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2), 220-236.
<http://doi.org/10.1037/0893-3200.14.2.220>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3rd ed., pp. 514-547). New York: Guilford Press.
- Power, T. G. (2013).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A brief histor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Childhood Obesity*, 9(s1), S14-S21.
<http://doi.org/10.1089/chi.2013.0034>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mall, S. A. (1988). Parental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childrearing practices,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and adolescent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1063-1072.
- Song, Z., Foo, M. D., Uy, M. A., & Sun, S. (2011). Unraveling the daily stress crossover between unemployed in-

dividuals and their employed spous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1), 151-168.

<http://doi.org/10.1037/a0021035>

- Wilson, S., & Durbin, C. E. (2010).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67-180.

<http://doi.org/10.1016/j.cpr.2009.10.007>